


제6차 수출전략회의

④호 안건

(공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농수산물식품 수출확대 전략

2025. 2. 18.

관 계 부 처 합 동

농수산물식품 수출확대 전략(요약)

1. K-Food⁺ 수출확대 전략

1 현황 및 전망

- ☐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민·관의 시장 개척/확대 노력 및 한류 확산 시너지를 토대로 최근 3년간('22~'24) 연평균 약 5% 성장세
* 농식품(K-Food, 가공식품·신선농산물)과 농산업 제품(+, 스마트팜·농기자재·펫푸드 등)
- ☐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및 기후변화 등 K-Food⁺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 ☐ 전 세계 한류 인기^{*}에 힘입은 높은 K-Food 인지도 및 국제행사^{**}의 국내 개최는 K-Food⁺ 수출 성장에 촉매제 역할
* 한류 심리지수(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6개국 평균): ('22) 119.3 → ('23) 123.3(중간 성장세)
**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50BR, 3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 세부 추진방안

- ◆ (목표) K-Food⁺ 140억불 수출: (농식품) 105억불, (농산업) 35억불
- 농식품 10대 전략 품목* 40억불 수출(10-40 클럽)
* 딸기, 배, 포도, 파프리카, 인삼, 김치, 라면, 쌀가공식품, 과자, 음료

(1) 대외 수출 리스크 대응

- ☐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강화(무역보험공사 협업)
 - 농식품 기업의 환변동보험(25억원) 자부담율 완화(5 → 최대 0%)를 한시적(상반기)으로 달러(기존 엔화)에 확대 적용 * 하반기 연장 검토
 - 농식품 분야에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팜 단기수출보험(해외채권 손실 보전) 우대 기업·품목 확대
* 211개社, 169개 HSK코드 → 217개社, 183개 HSK코드
* 우대 내용: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20% 할인, 보험한도 최대 2배 확대

-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104 → 110개소) 및 **콜드체인** 운영 확대
 - 美·中·EU^{내륙운송비↑} 등은 신규물류센터 지정(6개소), CIS^{물류비↑, 빈도↓, 기간↑}는 입항지-소비지 간 공동 콜드체인 운송 지원(52억원)
 - 물류 공공기관(부산·울산·인천 항만공사)과 해외 물류인프라 공동 활용
- 국내외 전문기관 및 부처 협업을 통해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 통관, 인증, 위생·검역(SPS), 지적권 등 컨설팅 지원(122억원) 및 주요 수출국 관계자(검역관, 대사관 등) 방문 프로그램 운영(신규, 2회)
- **위조상품**(예: 동남아-김치, 라면, 배, 포도 등) 대응 강화(특허청 협업)
 - 현지 박람회·수출상담회 등에 해외 IP센터(10개소) 상담창구 운영 및 현지 관련 공무원 대상 가품 식별법 등 설명

[2] 수출 시장 · 품목 다변화

- 대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유망시장 공략, 현지화 지원** 강화
 - 농식품 주력 시장의 2선 도시(중국-서부, 일본-동서부) 및 3대 유망시장(중동·중남미·인도) 중심 시장 확대, 잠재시장 지원 거점(5개소) 확충
 - * K-Food Fair(8회), 온라인 한국식품관(15→17개소), 박람회(24회) 등(572억원) / 중동 할랄 친환경 식품(유기농) 및 중남미 학교 급식 연계·소비자 체험
 - 농기계의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해 60~110마력 중소형 트랙터 제품군 확대, '트랙터+작업기' 기업 간 합동 마케팅
 - * 농기자재 로드쇼(3→5개국), 박람회(5→8회), 수출상담회(4→5회), 시장개척단(2→4개국) 등(125억원) / 농약·비료 현장실증 지원 확대(5→6개국), 유기농·수제·천연원료 펫푸드 출시 지원

[3]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 및 고급화

- 전 세계 **한류** 및 **전자상거래** 확산세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 국가별 한류 인기도에 따라 대형 빌보드 광고, SNS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K-브랜드 간 상호 시너지 도모
 - * 수출 유망품목 간접광고(PPL, 문체부 협업) 등 K-콘텐츠 활용 현지 오프라인 판촉 지원
 - 글로벌 B2B·B2C 플랫폼을 통한 국내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및 국가별 인기 어플·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강화
 - * 온라인 한국식품관: 15 → 17개소 / 플랫폼 입점기업: 30 → 120개사

- 신선 농산물 **수출통합조직**(17개 품목, 245억원) 및 **전문생산단지**(182개소, 55억원) 중심으로 생산·선별·포장·마케팅까지 일괄 지원
 - 스마트팜 활용 안전관리 강화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 * (예시) 과수화상병 예방 친환경 약제 지원, 선제적 방제 등으로 품질·품위 확보
 - 국내 저온유통체계 구축 및 CA* 유통기술 활용으로 수출 전(全) 과정에 걸쳐 신선농산물 선도 유지 강화 및 유통비용 절감
 - * CA(Controlled Atmosphere): 대기 환경 조절을 통한 신선도 유지 연장 기술

[4] 수출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원료구매자금, 시설 현대화·자동화**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 농식품(4.5천억원)·농기계(3천억원) 원료구매자금 지속 지원, 농약(150억원)·비료(4→5천억원) 원료구매자금 신설·확대
 - K-Food+ 수출기업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46→96억원), 농산업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신규 지원(기업당 최대 2억원, 중기부 협업)
- 맞춤형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K-Food+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 농식품 바우처 규모 확대(328→360억원)와 함께 시스템(aT-무역통계진흥원) 연계를 통해 기업 행정(정산 등) 부담 완화
 - 농산업 제품 인증, 지재권 등록 등 수출바우처 지원(중기부 협업)
- **스마트팜 소주기 지원 체계** 구축* 및 농기자재 수출 유망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 바이어·프로젝트 발굴(중점무역관 5→6개소) → 거점 활용 홍보(시범온실 3→4개소) → 밀착 지원(실증(신규, 6개소)·컨소시엄(4→6개소) 지원)
 - ** 2개 분야(인·허가 등), 50개소 → 14개 분야(법무·세무·브랜드 개발 등), 70개소

[5] 수출 추진체계 강화

- 민·관 합동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본부장: 장관) 확대 운영 및 수출 문의·상담 강화를 위해 「aT 수출정보데스크**」 기능 확대
 - * 업계(기업, 협회 등), 유관기관(농진청, aT, 농어촌공사, KREI 등) + 전문가
 - ** 국내(12개소) 및 해외(6개소)까지 전담 직원 지정, 상담 유형별로 DB화하여 전문성 확보

2.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

1 추진배경

- ('24년 실적) 전체 수산식품 수출 30.3억불(3년 연속 30억불 달성), 김 9.9억불(역대 최고) 기록하였으나, 굴·넙치^{日생산↑}, 전복^{단가↓} 등은 감소
- 주요 수출국인 일본(6.6억불, 3.4%↑)·미국(4.8억불, 11.7%↑)과 함께 유럽(16.4%↑), 러시아(44.3%↑), 캐나다(10.3%↑) 등 유망시장 수출 증가

⇒ (시사점) 주력품목 수출 기반 강화 및 차세대 유망품목(굴·넙치 등)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산업 성장기회 창출 및 무역리스크 분산 필요

- ('25년 여건·전망) 美 신정부 통상정책 및 세계 경제 성장 보합세, 환율 변동 및 국제분쟁 지속 등 불확실성 증대
- 기후변화 등 생산 여건 변화로 김 가격 및 생산량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수출 물량 예측과 재고 확보 어려움

* 물김 산지가격(원/kg): ('24.10) 3,900→('24.11) 4,002→('24.12) 2,254→('25.1) 777
마른김 도매가격(원/100장): ('24.10) 10,780→('24.11)10,970→('24.12)11,535→('25.1)11,800

2 전략 목표 및 세부 과제

- ◆ (비전) 2025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 ◆ (목표, 수출액/천만불 기업) '24년 30.3억불, 62개사 ⇒ '25년 31.5억불, 70개사

- [관세·비관세 대응] 보편관세·환율 변동 대비, 우수수산물 정책 자금 융자(1,489억원) 및 물류비용 지원, 현지 물류거점 확대 추진
- 「비관세장벽 플랫폼」 개설과 對美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체계 및 「수산식품 수출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수입 규제 대응

- [리스크 대응력 강화] 환차손·미수금 발생 등 무역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수출보험 가입 지원*(업체당 최대 6천만원) 확대 추진

* 리스크안정망 구축 사업: '25년 825백만원 (최근 3년간 114개사 신청, 56개사 지원)

- '초보기업' 대상 지원 기준* 완화, 조미김·굴·넙치 등 주요품목은 '전략품목'으로 지정 후 '업종별 조직' 단위 지원(선도조직사업)

* (수출바우처사업 초보기업 기준) 전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주력품목 강화]** 신제품 개발·중금속 관리를 통해 '고품질 물김' 생산, '김 등급제' 및 '마른김 거래소' 운영을 통해 「K-GIM」 브랜드 가치 제고
 - 냉동필렛 등 가공품 비율 확대와 EU 시장 맞춤형 전략을 통해 참치 고부가가치화, MSC 인증 취득 지원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뒷받침
- **[차세대품목 육성]** 굴(훈제, 굴 감바스), 넙치(간편 넙치회), 전복(손질전복) 등
 - ①고차가공 기술개발-②제품생산-③인증·검사-④통관 등 전 주기 지원
 - 국내·외 냉장·콜드체인 운송망 확대를 통해 안정적 수급 도모, 현지 유통업체*·세프 대상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판로 개척 지원
 - * (EU) 현지 대형 냉동·냉장 식품체인(Picard, Carrefour 등) 판촉 지원

원물(신선·활수산물) 중심	고차가공품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 유지 어려움 → 중국·일본 등 아시아 근거리 수출 ■ 1차 산업 성장 기여 * (예시) 물김 8,100원/100장 생굴 7,000원/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유통 이송 용이 → 남미·중동·유럽 등 장거리 국가 다변화 ■ 1차 산업+2차·3차 산업 동반성장 기여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가격 상승) * 마른김 11,535원/100장, 조미김 58,500원/100장 훈제굴 19,577원/kg, 건조굴 40,000원/kg

- **[수출국 다변화]** 수산식품의 차별화된 'K-씨푸드 온라인관·앵커숍' 및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남미·중동·유럽 등 K-브랜드 마케팅 추진(문체부 협업)
 - 해외무역지원센터 확대·개편(淸중화권 중심→브라질·UAE 등 신규시장) 통해 바이어 후속지원 내실화(MOU 체결 유망 바이어 초청사업)
- **[스마트화·현대화]** 수산식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중기부 협업)* 및 가공설비·장비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지원
 - * 중기부자동화장비·센서 등 스마트공장 구축 및 해수부판로개척·품질인증·컨설팅 지원
 - 권역별 수출품목 특화 수산식품 수출클러스터* 및 스마트가공단지** 조성을 통한 수출산업 기반 강화
 - * 전남 (해조류 특화, '20~'26년, 1,137억원) / 부산 (R&D 특화, '22~'28년, 813억원)
 - ** 전북 (새우 특화, '22~'26년, 433억원) / 경북 (붉은대게 특화, '23~'26년, 380억원)
- **[K-FISH 브랜드화]** 기업 상표권 무단 선점·도용 등 지재권 대응 체계 구축(특허청 협업), 국가통합브랜드 K-FISH* 활용 현지 마케팅 확대
 - * K-FISH 승인(개) : ('19) 172 → ('21) 244 → ('23) 336 → ('24) 350 → ('25년 목표) 386

목 차

I . K-Food ⁺ 수출확대 전략 (농식품부)	1
1. 그간 추진 성과	2
2. 상황 진단	3
3. 추진 방향	4
4. 세부 추진방안	5
5. 과제별 추진 일정	12
II .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 (해수부)	13
1. 수산식품 수출 실적 및 시사점	14
2.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여건 및 전망	15
3. 비전 및 추진 방향	17
4. 추진전략별 세부 실천 과제	19
5. 과제별 추진 일정	26

K-Food⁺ 수출확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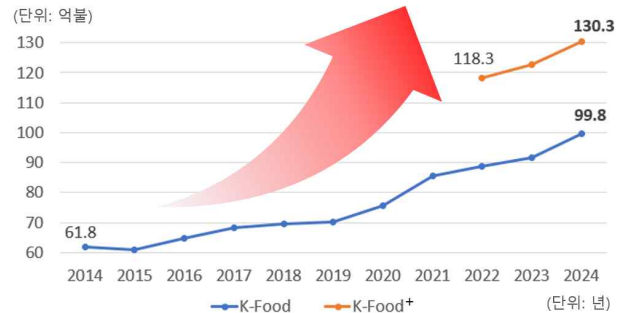
I. 그간 추진 성과

-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민·관의 시장 개척/확대 노력 및 한류 확산 시너지를 토대로 최근 3년간('22~'24) 연평균 약 5% 성장세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농식품(K-Food)과 농산업 제품(+)을 통칭

- (농식품) 가공식품, 신선 농산물
- (농산업) 스마트팜, 농기자재(농기계·비료·농약),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K-Food⁺ 수출 추이('14~'24년)

- '24년 국제 정세(러-우 등), 환율 변동 등의 제반 수출 여건 속에서도 K-Food⁺ 수출은 역대 최고 기록인 약 130억불 달성(전년 대비 6.7% ↑)

- (농식품)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 전년 대비 9.0% 증가한 99.8억불

* 농식품 수출 : ('14년) 61.8억불 → ('19년) 70.3 → ('24년) 99.8('14년 대비 61.5% ↑)

- (가공) 전년 대비 10.6% 증가한 84.1억불로 수출 상승세 견인, 라면, 쌀가공식품, 소스류, 과자·음료 등 주력 품목 최대 실적 기록
- (신선) 전년 대비 0.9% 증가한 15.7억불로 역대 최대 김치 수출, 포도, 유자 및 쌀 수출액 증가

- (농산업) 29.7억불로 전년 수준이나, 진출국이 확대되며 수출영토 확장

- (스마트팜) 경제외교, 지원 정책을 통해 수출기업·수출국 및 수주 체결 건수 증가* 등 K-스마트팜의 글로벌 입지 확대

* ('23년) 10개社, 9개국, 11건 → ('24년) 13개社, 12개국, 18건

** '23년 대형수주 역기저 효과로 수주액은 감소, ('23년) 149백만불 → ('24년) 101(△32.2%)

- (농기자재) 농약은 對남미·동남아 완제품 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세 지속, 동물용의약품은 중동측 양계백신 수요 증가 등으로 반등

* '24년 수출액 : 농약 8.2억불(전년비 64.3% ↑), 동물용의약품 2.8(9.6 ↑)

II. 상황 진단

□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및 기후변화 등 K-Food⁺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 (관세)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교역국 대상 보편관세 부과 및 상대국의 보복관세 조치 가능성

현장의
목소리

"K-Food의 인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미 수출 국산 농산물의 비관세 정책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 (비관세장벽) 위생·검역(SPS)*, 통관, 인증 관련 각 국 규제/조치 증가

* WTO에 통보된 SPS 조치: ('18) 1,631건 → ('21) 1,825 → ('24) 2,147

현장의
목소리

"수출바우처, 보조금 지원, 수출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

○ (환율 등) 환율 변동성 확대, 높은 원자재 가격·물류 비용 부담

* 강달러로 인한 원자재 수입·물류 부담 가중, 엔저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하락 우려

현장의
목소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환율 안정화가 수출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 (기후변화) 온난화로 인한 적합 재배지 변동 및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재해로 신선 농산물의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에 애로

현장의
목소리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출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성이 높은 신품종을 활용한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물량 확보가 필요"

□ 전 세계 한류 인기*에 힘입은 높은 K-Food 인지도 및 국제행사**의 국내 개최는 K-Food⁺ 수출 성장에 촉매제 역할

* 한류 심리지수(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6개국 평균): ('22) 119.3 → ('23) 123.3(중간 성장세)

**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50BR, 3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한류와 함께 성장한 라면·김밥 등 K-푸드 수출은 국가 브랜드 상승과 연관 산업의 동반 수출에도 기여

현장의
목소리

"한국문화(드라마, 음악, 영화 등) 선호도가 매우 높은 만큼 한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행사 개최와 수입업체 참여 확대 요청"

Ⅲ. 추진 방향

목표

K-Food⁺ **140억불*** 수출 : (농식품) 105억불, (농산업) 35억불

- 농식품 10대 전략 품목* 40억불 수출(10-40 클럽)

* 딸기, 배, 포도, 파프리카, 인삼, 김치, 라면, 쌀가공식품, 과자, 음료

1 대외 수출 리스크 대응

- ① 수출보험 확대
- ② 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확대
- ③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 ④ 위조상품 대응 강화

2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 ① (농식품) 2선 도시·품목 다양화·신규 거점
- ② (농산업) 중점·유망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3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 및 고급화

- ① 한류 활용 홍보
- ② 온라인 수출 활성화
- ③ 프리미엄 시장 공략

4 수출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① 운영자금 및 시설 현대화
- ② 수출바우처
- ③ 스마트팜 전주기 지원
- ④ 농산업 분야 전략기술 개발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로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IV. 세부 추진방안

1 대외 수출 리스크 대응

◆ 환율 변동, 물류비 상승,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수출 환경에 적시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 (환율) 환차익 손실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의 기업 자부담율 완화*를 엔화(¥)에 이어 달러(\$)에도 확대 적용(무역보험공사 협업)
 - * 상반기에 자부담율을 완화(5 → 최대 0%)하고, 하반기에 수출상황을 감안해 연장 검토
- 농식품 분야에 미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최초 도입 및 스마트팜 단기수출보험*(해외채권 손실 보전) 우대 기업·품목 확대
 - * (기존) 211개社, 169개 HSK 코드 → (개선) 217개社, 183개 코드
 - * 우대 내용: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20% 할인, 보험한도 최대 2배 확대
- (물류) 주요 수출국 내 공동물류센터(104 → 110개소) 및 콜드체인 운영 확대
 - 미·중·EU^{내륙운송비高} 등은 신규 물류센터 지정, CIS^{물류비高, 빈도低, 기간長}는 입항지-소비지 간 공동 콜드체인 운송 지원
 - * 물류 대란 시(해상운임 급등, 항만노조 파업 등) 지원 범위 확대(임시 보관료 등) 검토
 - 물류 공공기관(부산·울산·인천 항만공사)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물류 인프라를 공동 활용(對중국 파프리카 운송기간 단축, 5→3일)
- (비관세장벽)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정부간 협력 강화
 - * 통관, 인증(FSSC22000, 할랄 등),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등
 - 해외 전문기관(36개국, 97개소) 활용 컨설팅 및 수출국 관련 담당 공무원 면담 및 방문 프로그램(신규, 2회) 추진
- (위조상품) 기관간 협업(aT-지식재산보호원)으로 박람회 등 연계 해외 IP센터 상담창구* 운영 및 외국 정부·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 * 현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 등 안내

◆ [농식품] 2선 도시 진출, 수출품목 다양화, 신규 거점 운영

* K-Food Fair(8회), 온라인 한국식품관(15→17개소), 박람회(24회), 안테나숍(33개소) 등

- (성숙 시장) 미국·중국·일본 2선 도시(미^{남부}·중^{서부}·일^{동서부}) 본격 진출
 - 2선 도시 내 주요 유통매장 진출과 연계하여 신규 공동물류센터* (6개소)를 발굴하고 보관 및 콜드체인 이용 등 지원
 - * 미국(텍사스, 조지아), 일본(후쿠오카), 중국(톈진) 등
 - 우리 기업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메뉴와 연계하여 김치, 떡볶이, 쌀가공제품, 소스류 등 주요 식자재 수출
 - * 해외 진출 급식 서비스 기업 3개소-aT간 식자재 수출 활성화 MOU 체결('24.12.)
 - 대규모 주요 행사*(국제 스포츠 행사, 지역축제 등)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지역 내 주요 유통매장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 개최
 - * 중국(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2월), 일본(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5~6월)
- (유망 시장) 3대 시장^{중동·중남미·인도} 및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중앙아(CIS)의 소비 트렌드, 종교·문화를 반영하여 전략적 접근
 - * (중동) 할랄, (중남미) 매운맛, (인도) 비건, (EU) 글루텐프리(gluten-free), (아세안) 저염·저당, (CIS) 현지 진출 한국식 편의점 연계 즉석 간편식품
 - (3대 시장) 중동^{UAE}·중남미^{브라질}·인도 최대도시(두바이, 상파울루, 뭄바이) 중심으로 현지 박람회, 지역축제, 급식 연계를 통해 홍보 효과 극대화
 - (할랄 시장) 국내외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확대(사우디 등) 및 대형 유통매장 판촉, 팝업스토어 운영 등 K-할랄 마케팅
- (잠재 시장) 농식품 중점무역관(5개소*)(코트라, 신규)으로 지원 거점 확충
 - *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칠레, 과테말라
 - 국가별 현지 수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유력 식품 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를 통해 잠재 바이어 발굴
 - * 우즈베크 UzFood(4월), 칠레 Espacio Food&Service·과테말라 Feria Alimentaria(9월)

◆ **[농산업] 중점·유망시장별 수출국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 로드쇼(3→5개국), 박람회(5→8회), 수출상담회(4→5회), 시장개척단(2→4개국) 등

□ (농기계) 미국^{중점시장}은 '트랙터(주력제품)+작업기' 기업 간 합동 마케팅으로 작업기 수출 확대

○ 유럽·중남미^{유망시장}는 지역 특화 제품군을 확대하고, 런칭쇼·시연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

* 60~110마력 중소형 트랙터(유럽), 중남미 커피·열대과수용 트랙터(중남미) 등

□ (농약·비료) 동남아·중남미^{중점시장} 제품등록 국가 확장을 위해 현장 실증 지원 확대(5→6개국) 및 시장개척단 파견(베트남→태국 등 2개국)

○ 오세아니아·중동^{유망시장} 등 진출 확대를 위해 제품 고급화 지원* 및 법무·세무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11→15억원)

* 비료 입자의 뭉침·부서짐 방지 및 균질화 등을 위한 제품 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 ('24년) 제품등록·마켓테스트 등 2개 분야 / 50개소 →

('25년) 법무·세무 컨설팅·브랜드 개발 등 14개 분야 / 70개소

□ (동물용의약품) 유럽^{중점시장}은 주력제품(액상 라이신* 등) 판촉 강화

* 전세계 3개社만 제조, 이 중 1개社가 국내 기업

○ 남미·동남아^{유망시장} 수출국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멕시코·칠레)

- 동남아 최대 축산 박람회인 VIV ASIA(방콕, 3월)와 연계, '한국의 날' 행사를 최초 개최하여 K-동물용의약품 대대적 홍보 전개

- 국내보다 높은 수준의 GMP(품질관리 기준) 지정을 희망하는 수출 업체 대상 GMP 컨설팅 지원(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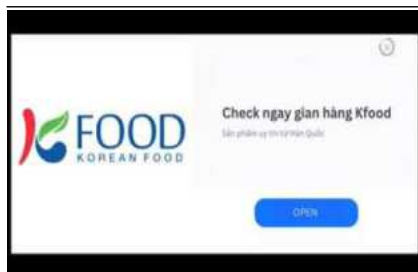
□ (펫푸드) 동북아·동남아^{중점시장} 수출국 확대를 위해 공장·제품 등록, 검역·통관 등 절차·방법 심층조사 실시(신규, 베트남 등 5개국)

○ 미국·EU^{유망시장}는 유기농·수제·천연원료 사료 등 고급화 지원

* 안전성·성능 시험 및 디자인 등 제품 고도화 지원(20개社),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등) 및 대형 유통업체(월마트 등) 입점 확대를 위한 실무교육 강화(9회)

◆ **한류 확산 및 온라인 시장 성장세, 프리미엄 소비 증가를 활용**

- (한류) 국가별 한류 호감/인지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K-브랜드 간 상호 시너지 도모
 - 한류 수준을 3단계(소수관심·확산·대중화)*로 구분하여 옥외 광고부터 K-팬덤(fandom)을 활용한 SNS 마케팅까지 단계별 접근
 - * (소수관심) 독일, 프랑스 등 / (확산) 브라질, 멕시코 등 / (대중화) 말련, 인니 등(KOFICE)
 - 수출 유망품목 간접광고(PPL) 등을 포함한 K-콘텐츠를 활용하여 아세안 등 한류 대중화 권역 대상 K-Food 오프라인 판촉 지원
- (온라인) 글로벌 B2B·B2C 플랫폼을 통한 국내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및 국가별 인기 어플·인플루언서 연계 K-Food 홍보 강화
 - 해외 주요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을 추가 개설*하여 유망품목 신규 입점 확대와 공동마케팅(라이브커머스, 할인행사 등) 진행
 - * 온라인 한국식품관: 15 → 17개소
 - 수출기업의 글로벌 B2B·B2C 플랫폼 입점(120개사) 및 중소 농식품 기업 대상 온라인 수출 전문인력*(36명) 지원
 - * 온라인몰 입점, 상품 등록, 주문관리, 정산 등 온라인 수출 전반에 관한 업무 담당
 - 국가별 배달·메신저 어플 등에 K-Food 홍보 배너 설치, 현지 SNS 인플루언서*의 파급력을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 소비 경험 확산
 -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UAE + 이집트(추가)



모바일 게임



모빌리티 어플



SNS 인플루언서

□ (소비^{프리미엄}) 고급 레스토랑(Fine dining), 호텔, 기내식, 면세점 등 신규 프리미엄 시장 개척을 통해 K-Food 고급화 전략 추진

- 호텔^{딸기·포도}, 파인 다이닝^{전통식품} 내 고급 코스요리 개발 및 인플루언서 연계 시식회, SNS 신메뉴 런칭 홍보 등 마켓테스트 추진

* 해외 우수 한식당 16개소(파리(7개소), 뉴욕(6), 도쿄(2), 런던(1)) 연계

- 주요 항공사 비즈니스석 이용 고객 대상 기내식^{딸기} 제공 및 방한 외국인 대상 인천공항 면세점^{딸기·포도·배} 판매로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 딸기 수출통합조직(케이베리)을 카타르항공 기내식 케이터링사 벤더로 등록('24.8월)

- 아·태 경제협력체(APEC)(농업장관회의 8월, 정상회의 10월) 등 주요국 고위인사 방한 계기 전통주, 쌀가공식품, 인삼 등 K-Food 홍보

□ (신선 품목^{프리미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육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수출 규격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트렌드 부합 신제품 수출 확대

- 스마트팜 활용 생육 모니터링·안전관리* 강화,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 노후화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 과수화상병 예방 친환경 약제 지원, 선제적 방제 등으로 품질·품위 확보

- 소비자 선호(맛, 당도 등) 감안 수출전문단지 중심으로 국산 신제품(파프리카*, 딸기, 포도 등)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재배 매뉴얼 보급

* 국산 종자로 외국산 종자를 대체하여 로열티 절감 및 국산화율 제고

- 국내 저온유통체계 구축 및 CA* 유통기술 활용을 통해 수출단계 전(全)과정에 걸쳐 신선농산물 선도 유지 강화 및 유통비용 절감

* CA(Controlled Atmosphere) : 대기 환경 조절을 통한 신선도 유지 연장 기술



파인 다이닝 연계



전통식품 홍보



딸기 신제품(스노우베리)

◆ 원가부담 경감, 수출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운영자금) 원료·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 2,724억원(용자) 지원
 - 농식품(4.5천억원), 농기계(3천억원), 비료(4→5천억원), 농약(신규, 150억원), 동물용의약품(38억원) 등 품목별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 확대
- (시설 현대화)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식품(46억원) 및 농산업(신규, 50억원) 기업의 수출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 강화
 - 스마트팜·농기자재 공장 자동화 등을 위한 스마트 제조공장 구축 신규 지원(중기부 협업, 기업당 최대 2억원)
- (수출바우처) 수출 전 과정 맞춤형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 확대(328→360억원), 농산업 수출바우처 지원 지속(중기부 협업)
- (스마트팜) '바이어·프로젝트 발굴(중점무역관) → 거점 활용 홍보(시범온실) → 밀착지원(실증·컨소시엄 지원)'까지 쉼주기 지원체계 구축
 - (시범온실) 旣구축 CIS(카자흐스탄), 동남아(베트남), 호주 시범온실 활용 인접국가 홍보* 확대, 중동(사우디) 시범온실 추가 조성('25.下)
 - * 인접국가 정부·기업 초청 설명회 개최, 현지 농업인 스마트농업 교육 등
 - * (사례) '24년 베트남 시범온실 활용 수출 상담 지원으로 인니 수주 체결(37만불)
 - (중점무역관) 스마트팜 특화 무역관 확대(5→6개소) 및 계약 조기 성사를 위한 현지 법무·회계 대응, 협상전략 수립 등 집중 지원
 - * 현지 프로젝트 발굴, 바이어 네트워킹 중심 → 현장 애로사항 지원 기능 강화
 - (밀착지원)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실증 신규 지원(5억원), 패키지(기자재·솔루션·재배기술 등)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지원 확대(4→6개소)
- (전략기술 개발) 농산업 분야 중장기 수출품목 육성을 위해 단계적 10대 전략기술 R&D 추진
 - * 대량생산이 가능한 보급형 수직농장 모델, 동남아 특화 농기계 자동조향 시스템 등

◆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수출정보데스크에서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

- (추진본부) 민·관 합동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본부장: 장관)를 확대 운영하여 급변하는 수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시 대응
 - * (참여대상) 업계(주요 수출기업, 협회 등), 유관기관(농진청, aT, KREI 등) + 전문가
 - (운영방향) 통상여건 변화, 품목·권역별 수출동향 점검, 애로 과제 발굴, 수출확대 지원방안 등 논의(분기별 1회)
 - 대외 수출 리스크 관련 「농식품 분야 대응 T/F」의 통상 환경 모니터링, 공급망 등 상황 점검 및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 공유
 - (범부처 협업) 기업 애로(통상환경 변화, 수입규제, 모방제품, 해외 법령 정보 등)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산업부, 관세청, 특허청, 식약처, 법제처 등) 협업 추진
-
- (정보데스크) 수출기업의 문의·애로에 대한 상시 상담창구인 aT 수출정보데스크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추진
 - aT 본부 외 현지 지사(6개소)까지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수출 기업 문의 등을 유형별로 DB화하여 상담*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 * 수출 절차, 국별 수입 기준, 지원 사업 정보 등을 안내하고 모바일 상담창구를 홍보
 - 기업 애로/건의사항은 필요시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범부처 협의체에서 논의
 - 개별 수출기업의 접근이 어려운 해외정보(국가별 검역·통관 제도, 라벨링 규정 변경사항 등) 모니터링 및 제공 강화(식약처 협업)
 - 상담 내용에 농식품 수출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를 추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FTA 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협업)

V.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과제	일정	소관부처
1. 대외 수출 리스크 대응		
○ 수출보험 강화	'25.1분기~	농식품부·산업부
○ 신규물류센터 지정, 해외 물류 인프라 활용	'25.1분기~	농식품부·해수부
○ 비관세장벽 대응	'25.1분기~	농식품부·식약처
○ 위조상품 유통 대응	'25.1분기~	농식품부·특허청
2.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 성숙 시장 2선 도시 진출	'25.1분기~	농식품부
○ 유망 시장 트렌드 반영 마케팅	'25.1분기~	농식품부
○ 잠재 시장 중점무역관 확충	'25.1분기~	농식품부
○ 중점·유망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25.1분기~	농식품부
3.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 및 고급화 전략		
○ 한류 활용 마케팅	'25.1분기~	농식품부·문체부·산업부
○ 온라인 수출 활성화	'25.1분기~	농식품부
○ 프리미엄 소비처·품목 프리미엄화	'25.1분기~	농식품부
4. 수출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운영자금·시설 현대화	'25.1분기~	농식품부·중기부
○ 스마트팜 전(全)주기 지원체계 구축	'25.1분기~	농식품부
○ 농산업 전략기술 R&D	'25.1분기~	농식품부
5. 추진체계 강화		
○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확대 운영	'25.1분기~	농식품부
○ 수출정보데스크 기능 강화	'25.1분기~	농식품부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

I. 수산식품 수출 실적 및 시사점

□ 3년 연속 수출 30억 불, 일본·미국·유럽 수출 증가세 지속

- (현황) 김 글로벌 수요 지속 및 참치 생산 증대로 수산식품 수출 30.3억 불 달성(전년대비 0.9% ↑), 김은 9.97억불 달성
 - * 수산식품 수출액(억불) : ('20) 23.1 → ('21) 28.3 → ('22) 31.5 → ('23) 30.0 → ('24) 30.3
- 김(9.97억불, 25.8% ↑) 수출 1.3조원 달성, 참치(5.9억불, 4.7% ↑) 수출 증가로 고등어(9천만불, 20.3% ↓), 굴(8천만불, 11.0% ↓) 등 감소 만회
 - * 수출 10위 품목('24): 김>참치>고등어>삼치>굴>오징어>게>이빨고기>전복>넙치
- (평가) 김은 견고한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 품목은 日 국내 생산 회복^{굴·넙치}, 단가 하락^{전복} 등으로 감소

⇒ 주력품목(김·참치) 수출 기반 공고히 하고, 차세대 유망품목(굴·전복·어묵 등) 육성

□ (국가별) 일본, 미국, 유럽 등 수출실적 증가 및 수출국 다변화

- (현황) 김을 중심으로 일본은 수출액 6.6억불(전년대비 3.4% ↑), 미국은 4.8억불(11.7% ↑), 유럽은 2.3억불(16.4% ↑) 기록
 - * 일본(6.6억불) > 중국(5.3억불) > 미국(4.8억불) > 태국(2.6억불) > 베트남(2.2억불)
- 중국*은 자국내 경기 침체 및 러시아산 수입재수출** 감소 등으로 5.3억불(전년대비 18.3% ↓) 기록하며 감소세 지속
 - * 對중 수산물 수출액(억불) : ('19) 5.2 → ('20) 4.4 → ('21) 7.3 → ('22) 9.0 → ('23) 6.4 → ('24) 5.3
 - ** 수산물 재수출액(억불) : ('19) 3.4 → ('20) 2.9 → ('21) 5.3 → ('22) 8.2 → ('23) 4.6 → ('24) 3.4 (코로나19 이후 中의 러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재수출(러→韓→中) 증가)
- 日·中·美 등 주요국 수출 비중*은 55.9%(전년보다 1.2%p ↓)로 수산식품 수출국 다변화 및 시장 확대 경향 지속
 - * 일중미 수출 의존도(%): ('19) 61.9 → ('20) 61.4 → ('21) 62.2 → ('22) 62.0 → ('23) 57.1 → ('24) 55.9
- (평가) 러시아(44.3% ↑), 프랑스(22.4% ↑), 캐나다(10.3% ↑) 등 수출액 비중은 적으나 성장세가 큰 국가에서의 수출 잠재력 확인

⇒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산업 성장기회 창출 및 무역리스크 분산 필요

Ⅱ. 2025년 수산식품 수출 여건 및 전망

□ 美 신정부(1.20~)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 (여건) 美 신정부 통상정책 및 세계 경제 성장의 보합세*, 환율 변동(엔저 효과 등) 및 국제분쟁(러-우 전쟁) 지속 등 불확실성 증대
 - * 세계 경제 성장률(% IMF) : ('24) 3.2 → ('25 예상) 3.2
-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의 내수 경기 회복, 신흥시장인 유럽의 통화긴축 완화에 따른 해외 수산물 수요 확대가 기대되나,
- 美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및 중국의 부동산 침체 및 소비 둔화 지속 등에 따른 위협 요인 상존
- (전망) 美 고율 관세 부과, 해양생물 보호 및 식품 이력 관리 등 비관세장벽* 강화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전망
 - * (美, '26.1~)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근거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시행,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근거한 식품 이력정보 보관 의무화 조치 시행 예정
- 또한, 對^미러시아산(러-우 전쟁) 및 對^중일본산(후쿠시마) 수산물이 본격 진출할 경우 우리 수산물과의 경쟁 격화도 예상

□ 수산업 환경 및 기후변화·생산 여건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수산업 환경 변화) 수산업·어촌 고령화 및 정주여건 낙후 등 생산기반 위축으로 인한 수산식품 수출 여건 악화 가능성 상존
 - * 어가 고령화율 : ('20) 36.0% → ('21) 40.5% → ('27) 47.5%
- (생산 여건 변화) 기후변화 등으로 김 가격 및 생산량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수출 물량 예측과 재고 확보 어려움
 - * 물김 산지가격(원/kg): ('24.10) 3,900→ ('24.11) 4,002→ ('24.12) 2,254→ ('25.1) 777
마른김 도매가격(원/100장): ('24.10) 10,780→ ('24.11) 10,970→ ('24.12) 11,535→ ('25.1) 11,800
- (지식재산권 침해) 조미김, 어묵 등 가공품 수출 비중 증가에 따라 상표 무단 선점·도용 등 지재권 침해 가능성도 증가
 - * 중국, 동남아 등 해외지역에서 조리김, 게맛살 등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피해 사례 다수 발생

〈 국가별 수출전략 및 품목별 당면과제 〉

□ '25년도 주요 품목별 당면과제

김	원료 가격 안정 및 원활한 재고 확보 대응	참치	부가가치 향상 및 국제인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김수요 확대, 물김 생산부족에 따른 가격↑, 재고↓로 공급부족 방지 필요 ◦ 세계 김 시장에서 K-김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생산업계 소득안정, 물류 효율화 <p>⇒ 마른김 등급제 및 국제 마른김 거래소 도입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치 생산 보합세 및 횡감용생산 감소 전망에 따라 고부가가치화 필요 ◦ 중국·EU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발굴 및 판로 확대 <p>⇒ 일본·EU 등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확대</p>	
굴	유럽 시장 진출 및 가공제품 개발	전복	일본·아세안 중심 마케팅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등 최종소비까지 장기간 소요에 따라 생굴 선도 유지부담·폐사로 선호 감소 ◦ 프리미엄 건조 굴, 굴 스프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하여 유럽, 아세안 시장 공략 필요 <p>⇒ 프리미엄 건조·가공품 시장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의 경우 수출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출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감소 * 수출량 : ^(23.12)2,666 → ^(24.12)2,786톤(4.5%↑) ** 수출단가 : ^(23.12)20.4 → ^(24.12)18.2\$/kg(10.7%↓) ◦ 일본·베트남 등 외식·관광 전복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현지 유통사 연계 시장 확대 <p>⇒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일본·아세안 중심 판로 개척</p>	

□ '25년도 주요 국가별 수출확대 전략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장벽 확대 대응	유럽	굴 중심 윤리·친환경 시장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수산식품 수출 3위국(약 4.3억 불) ◦ 中·EU 등 고율 관세 부과 정책 추진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 ◦ 해양포유류 보호(MMPA), 식품추적·이력 강화(FSMA, SIMP) 등 수입관리 강화 <p>⇒ 비관세장벽 강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산식품 수출국 우위 확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수산식품 잠재시장(2.3억불)으로 참치, 김 위주로 수출 ◦ 비건·건강식,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으로 국산 해조류·패류 수출가능성 확대 ◦ 식품위생·안전 규정 강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산식품 진출 확대 필요 <p>⇒ 굴 가공식품 현지화 및 MSC 등 지속가능인증 취득을 통한 시장확대 필요</p>	
중국	비관세장벽 완화 및 수입재수출 기회	일본	최대 소비시장, 경기회복 기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 2위국으로서, 김, 참치, 삼치 등이 주요 수출 품목 ◦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입재수출 기회, 정부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 회복 기대 <p>⇒ 수입산 및 원양산 등 활용한 중국 시장 타겟 수산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수입재수출 감소분 만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김 생산의 평년 수준 회복 전망에 따라 한국산 김 수출 보합세 전망 ◦ 경기 회복에 따른 참치, 전복 등 외식 중심 소비 개선 기대 ◦ 수산식품 수출보험·보증 지원을 통하여 엔화 변동 피해 예방 및 업계보호 필요 <p>⇒ 판로 확대와 함께 수출 가격 제고를 위한 김 등급제 도입 및 품질 위생 관리 강화 필요</p>	

Ⅲ. 비전 및 추진 방향

비전

2025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목표

	'24년 실적	'25년 목표
전체 블루푸드 수출액	30.3억 불	31.5억 불
* 수출액(억불) : ('20) 23.1 → ('21) 28.3 → ('22) 31.5 → ('23) 30.0 → ('24) 30.3		
천만불 수출기업	62개사	70개사
* 천만불 수출기업(개사) : ('20) 41 → ('21) 55 → ('22) 62 → ('23) 59 → ('24) 62		

추진 전략

추진과제	세부 추진내용
1. 美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1-1. 보편관세 및 환율변동 영향 대응 1-2.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구축 1-3. 무역리스크 대비 경영안전망 구축
2.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2-1. 수출 주력품목 주도권 강화 2-2. 차세대 수출품목 고차가공 및 유망상품화 2-3. K-블루푸드 브랜드파워 확산
3. 지속가능한 수출을 위한 수산업 기반 강화	3-1. 블루푸드테크·고차가공 기술 변화 대응 3-2. 수출클러스터 등 산업 기반 활성화 3-3. 해외시장 지식재산권 보호

〈 주요 전략과제 도출 배경 〉

□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구축

- (그간 추진 실적 및 미비점)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신설(’24.5~, KMI) 및 수출 공급망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구축
 - 대응센터 시범운영을 통해(113건) 개별적 업체 애로 해소 등 지원 하였으나, 체계적 대응 시스템 미비
- * ’24년 전 세계 비관세 신규 조치 통보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66건 기록

☞ (’25년 전략과제 도출) 「비관세장벽 플랫폼」 구축* 및 ’26.1월 시행 예정 수입 규제 조치(MMPA, FSMA**)의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 국가별·품목별 비관세 관련 최신 정보 통합 조회, 과거 비관세 관련 제도 아카이브 기능 제공

** (MMPA) 수출허가증명서 대응조직 확대 및 관리 시스템 등 발급 체계 구축
(FSMA) 대미 수산식품 수출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차세대 수출품목 고차가공 및 유망상품화

- (그간 추진 실적 및 미비점) 유망상품화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굴·전복·넙치 등 차세대 수출품목의 가공상품 수출체계 전환 추진
 - 남미·유럽 등 유망 국가의 현지 시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가공상품 개발 및 홍보 전략 미비로 수출국 다변화 한계로 작용

☞ (’25년 전략과제 도출) 유럽 등 현지 세프 연계 고차가공품 개발, 한류 연계 K-브랜드 부처협업* 및 대형 유통업체** 판로 개척 지원

*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계부처 협업 박람회 추진 및 방한 외국인 대상 마케팅 추진

** 유럽 현지 대형 냉동·냉장 식품체인(Picard, Carrefour 등) 진출 등 판촉 지원

□ 고품질 김 수출원료 안정적 공급 및 충분한 재고 확보

- (그간 추진 실적 및 미비점) 물김 생산량 증대(신규면허 등) 및 가공김 생산성 제고(김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를 통한 수출업체 물량 확보 지원
 - ’24년 물김 가격 안정화에도 수출업체의 마른김 재고 확보 어려움 지속

☞ (’25년 전략과제 도출) 영세·중소 가공업체의 생산 기반 활성화* 및 기업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가공김 물량 확보 지원

* 가공시설 지원 확대, 부처협업 스마트공장 전환 / ** 우수수산물 정책자금 지원 등

IV. 추진전략별 세부 실천 과제

1 美 관세·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 ◆ (현황) 對美 수산물 수출액은 연 4억불 이상으로 성장세('23년 14.3%→'24년 15.8%)
* 주요 품목('24년): 김(44.6%), 이빨고기(12.6%), 굴(5.3%), 넙치(4.1%), 오징어(3.9%) 등
- ◆ (관세 영향) 일부 김·오징어·굴 등 중국산과의 경쟁 품목은 가격경쟁력 상승 기대
* 현재 美 관세 부과국 진출 현황은 중국 1개 중견기업(대미수출無), 멕시코 1개 신생기업(25.6 개소) 등

① 보편관세 및 환율변동 영향 대응

- (유동성 지원)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美 보편관세 및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 유동성 악화 위험 최소화
* 우수수산물: 1,489억원(전년보다 165억원↑)/고정(2.5~3.0%) 또는 변동/업체당 50억
** 가공시설 및 운영: 195억원/ 고정(2.5~3.0%) 또는 변동/ 업체당 7억원
- (물류 지원) 관세·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국 다변화 시, 예상되는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보관 지원* 및 현지 물류거점** 확보 추진
* 美 주요 수출 활수산물(넙치, 전복 등)의 국내 공항·항만 인근 수조 임차비 80%
** ('24) 19개국 72개소 물류센터 → ('25) 20개국 76개소(뉴저지, 뉴욕, LA 등)
*** 해외공동물류센터 : ('25) 23억원/ 지원한도 4천만원(전년보다 1천만원↑)
국내공동물류센터 : ('25) 5억원/지원한도 6천만원(전년보다 4천만원↑)

② 주요 수출국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구축

- (지원 허브) 수출 규제 전담 비관세 대응센터* 운영('24.5~) 및 「비관세장벽 플랫폼」** 개설('25.5)
* (구성) KMI 전문연구진 및 관세·통관, 기술기준·수입규제 등 산·학·연 네트워크
** (기능)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장벽 관련 최신 정보 및 주요국 식품 안전기준 통합 조회, 과거 비관세 관련 제도 변경 아카이브 제공
- (美 수입규제 대응)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등 대응체계(海양포유류 보호(MMPA) 및 「대미 수산식품 수출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FSMA·SIMP)^{위생안전 불법어업}** 구축
* (해양포유류 보호) 멸치·넙치 등 수출 가능 품목의 경우 증명서 첨부 전제로 수출 가능
** (위생안전·불법어업) 생산·유통 이력 정보를 수출입업체에 보관(2년)·제출 의무화

③ 무역리스크에 대한 경영안전망 구축

- (보험료 지원) 환차손·미수금 발생 등 무역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수출보험 가입 지원*(업체당 최대 6천만원) 확대 추진

* 리스크안전망 구축 사업: ('25)825백만원 / 수출보험(3종) 가입비 90~100% / 미수금(단기 수출보험), 환차손(환변동보험), 신용보증(수출신용보증)

** 지원업체(개사) : ('25) 75개사 지원 목표(전년대비 14개사 ↑)

- 수출업계 위험관리 활동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지속 전파

* 찾아가는 교육(연 3회) 및 집합교육 실시, 유튜브, 대량메일링 서비스 등

- (리스크 대응력 강화-①개별 기업) 기업 단계별*로 취약점 보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천만불 강소기업 70개사 육성(現 62개사)

* (초보) 0.5억원 한도/ 3년 → (성장) 1억원 한도/ 3년 → (고도화) 2.2억원 한도/ 5년

** 19종 수출지원 항목(통관비, 유망상품 개발, 국제인증 취득, 라벨링, 상표권 등록, 현지 마케팅 등) 중 기업 필요에 따라 자율로 선택하여 활용

*** 수출바우처 지원: ('24)62개사/77억원→('25)100개사/116억원(전년대비 39.4억원 ↑)

- 특히 리스크 대응 역량이 부족한 초보기업의 수출성장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지원 기준* 완화

* (초보) 3년 평균 수출액 1~50만불 및 전년 매출액 5억원 이상(전년기준 10억원)

- (리스크 대응력 강화-②업종별 조직) 품목별 업체가 조직화*된 경우에는 '선도조직 사업**'을 통해 업·단체별 수출 기반 마련

* ①조미김(한국조미김, 해조류수출연합회), ②굴(굴선도조직협의회), ③전복(한국전북수출협회, 지속가능한전북산업협동조합), ④넙치(더건강한광어수출협의회) 등

** 선도조직 육성 : ('25년 예산) 12억원 / 생산-가공-수출기업이 연계된 자율 협의회 조직에 대해 시장개척, 품질관리, 마케팅 등 지원('24년 8개 조직 지원)

- 특히, 대미 주요 수출품목인 조미김, 굴, 넙치, 어묵 등에 대해서는 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

* (전략품목) 김, 굴, 전복, 어묵, 넙치 등(전체 수산식품 수출의 1% 이상 비중)

** (지원내용) 업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운영관리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등

2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 김·참치의 주도권 강화와 굴·전복 등 차세대 수출품목 육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남미·유럽 등 유망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① 수출 주력품목 주도권 강화: 김(세계시장 70% 점유), 참치(수출 2위 품목)

- (김) 생산-가공-수출 전(全) 주기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원가 변동 및 재고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업계 영향 최소화

* 김 산업의 안정적 원료 수급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24.10)

-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24~'26), '마른김 등급제*' 도입('24~'27), 물김 품질 향상 관리**를 통한 고품질 김 생산 추진

* 「AI 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실증」(R&D, '24~'26)

** 「마른김 중금속 저감 장치 기술개발」 추진(R&D, '26~'30)

- 유통 구조 개선 및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른김 거래소' 운영 기준 마련*, 'K-GIM' 명칭 확산**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

* 현재 공통화된 거래소 운영방식·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24년 서천, '25년 고흥), 거래 절차 및 입찰방식 등 표준화 필요

** 해외시장에서 김의 명칭이 주로 Nori, Seaweed, Laver 등으로 사용

- (참치) 고부가가치화 전략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수출형태를 원물 위주에서 냉동필렛 등 가공품으로 지속 확대

* 참치 수출액 중 필렛 비율 : ('23) 42.0% → ('24) 45.7% → ('25) 50% 목표

** ('25년 생산 전망) 가다랑어(통조림 등) 생산 보험세 및 눈다랑어(화·초밥용) 대서양 쿼터 축소('24, 1,337톤→'25, 1,100)에 따라 고부가가치화 절실

- EU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바이어 발굴 및 판로 확대 추진, 눈다랑어 등 희감용 참치의 고급화* 전략 등 부가가치 향상

* 프랑스(51백만불), 이탈리아(37백만불) 등 참치 주요 수출국가 대상 "참치 카르파초, 타르타르, 세비체" 등 가공품 키트 및 레시피 개발·홍보

- 선진국 선호가 높은 MSC 등 지속가능 국제인증 취득 대상 (수출전략인증) 및 지원 한도* 확대

* 국제인증 취득지원(억원) : ('24) 22.4(업체당 7천만원) → ('25) 26.3(업체당 1억원)

Marine Stewardship Council

② 차세대 수출품목(굴·전복·넙치·어묵 등) 고차가공 및 유망상품화

원물(신선·활수산물) 중심	고차가공품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 유지 어려움 → 중국·일본 등 아시아 근거리 수출 ■ 1차 산업 성장 기여 * (예시) 물김 8,100원/100장 생굴 7,000원/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유통 이송 용이 → 남미·중동·유럽 등 장거리 국가 다변화 ■ 1차 산업+2차·3차 산업 동반성장 기여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가격 상승) * 마른김 11,535원/100장, 조미김 58,500원/100장 훈제굴 19,577원/kg, 건조굴 40,000원/kg

- (가공 등 고부가가치화) 굴*(훈제, 굴 감바스 등), 넙치(간편 넙치회), 전복(손질전복) 등 품목별 고차가공 기술 개발**, 설비 고도화*** 지원

* 세계 굴 1위 수출국 도약을 위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수립('25.2, 관계부처 합동)

**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 : 수산가공업체에 신제품 개발 및 상품 개선 등 지원 ('25년 예산 : 12억원 / 개별 업체당 최대 연 1억, 최대 2년 지원)

*** 가공설비 지원 : 가공·포장 및 이물·금속 검출 등 설비 지원('25년, 21억원)

- (유망상품 개발) 상품화 단계별(스타트업-스케일업-스타상품)로

①메뉴 개발⇒②시제품 생산⇒③인증·등록·검사⇒④통관 등 지원

* 수출유망상품화 지원 사업 : 수출상품 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최대 6년 지원 ('25년 예산 : 22억원(전년보다 6억원 ↑)/총 31개사 지원/업체당 2.5억)

- 유망상품의 EU·중동·ASEAN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할랄 등 국제인증 취득 지원대상 및 한도(7천만원→1억원) 확대

* 국제인증 : ('25) 26.28억원(전년보다 4억원 ↑) / 국비80% 지원

** '할랄인증', '지속가능한 수산물' 취득 추가 지원으로 총 48종 인증 지원

- (현지 유통망 진출) 프랑스 등 유럽 내 대형 유통업체* 및 셰프 대상 홍보행사 개최, 박람회·상담회 초청 등 마케팅 추진

* 현지 대형 냉동·냉장 식품체인(Picard, Carrefour 등) 판촉 지원

** 주요 업계 관계자 초청 B2B 매칭, 온·오프라인 홍보('25년 예산: 8억원/8개국 9회)

- (안정적 수급) 국내·외 활수산물 냉장·콜드체인 운송망 확대*, 부가가치 높은 개체굴** 생산 체계 전환 및 식품안전성*** 홍보

* 물류센터 창고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풀필먼트(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포장, 배송, 반품 관리 등 물류 서비스) 등 구축비 지원('25년, 28억원)



** "개체"생굴(15천원/kg)은 "일반"생굴(7천원/kg)보다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평가

*** 미국 FDA의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산 굴과 달리 한국산 굴은 FDA의 인증받음

③ K-블루푸드 브랜드파워 확산

- (브랜드화 기반 구축) ^美아마존, ^中타오바오 등과 연계한 라이브 쇼핑, 인플루언서 콘텐츠 협업 및 K-씨푸드 온라인관 추진

* K씨푸드관 입점/컨텐츠 지원: ('25)220개사/475건(전년대비 20개사, 25건 ↑)

- 특히, 유럽 등 유망시장 진출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지 조사* 및 K-씨푸드 앵커숍** 통한 마켓테스트 지원

* 시장조사 : ('25) 2억원 / 12개사 60건(업체당 보고서 최대 5건 제공)

** 앵커숍 : 수출국가 현지에 설치하는 우리 수산식품 홍보·판매 마켓으로 '수산 식품의 해외 진출 및 정착을 위해 닛을 내린다'는 의미
('25년 예산) 10억원 / ('25) 전체 25개소(전년대비 3개소 ↑)

- (K-브랜드 협업) 국제박람회* 내 한국 수산식품관 운영 확대, 부처 합동 K-박람회** (캐나다, 스페인, UAE) 및 K-컨텐츠 연계 홍보 지원

* 국제박람회 내 수산식품관 운영 등 : ('25) 51억원(전년보다 12억원 ↑)

** 한류 K-박람회 및 K-컨텐츠 연계 홍보 등 : ('25) 31억원(전년보다 7억원 ↑)

- 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K-컬처 국내행사와 협업하여 밀착 홍보* 신규 추진하고, K-컨텐츠 연계 홍보 지원

* K-씨푸드 '인바운드 마케팅' : ('25) 8억원(신규)

- (무역지원센터) 남미·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 무역지원센터 (수협)* 개편을 통해 무역상담회** 등 현지밀착 지원 내실화

* (8개국 11개소) 중화권(상해·청도·홍콩·대만), 미국(LA, 뉴저지), 일본(도쿄), 동남아(방콕·호치민·자카르타), 유럽(파리, '24.11월 개소) ⇒ 남미·중동 중심 개편

** ('25) 16억원/ 무역지원센터 미소재국 상담회 3회 및 신규 도시 4회 개최

- BI(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해외 지사화 사업, 재외공관 협업 등 현지 지원 확대, 바이어 후속지원 내실화

* MOU 체결 유망 바이어에 대해 한국 업체 방문 등 비즈니스 지원 확대하고, 계약 체결 바이어에 대해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등 지원

3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수출산업 기반 강화

◇ 스마트화 및 IoT 등 미래 기술 변화, 어가인구 고령화 및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산업 기반 유지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1 블루푸드테크·고차가공 기술 변화 대응

- (스마트공장) 노후 가공설비 현대화 및 영세·중소업체의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공장비·시설 스마트화** 추진
 - * 수산물가공업은 '23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소상공인(10인 미만)의 비중이 66.5%
 - ** 스마트공장: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공장 운영의 모든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
 - 부처협업을 통해 **중기부** 자동화장비·센서 등 스마트공장 구축 및 **해수부** 판로개척·품질인증·컨설팅 지원('25년 15개사, 30억원, **신규**)
- (미래 식품) 미국·EU 등 선진국 식품시장의 **비건·친환경** 등 트렌드에 따라 수산물 활용 **대체육·배양육** 개발 본격 추진
 - * 「해조류 활용 대체수산식품 및 수산물 세포배양식품 기술 개발」('24~'28, 286억원)
 - ** 대체해조육 6종(면, 회, 어묵, 초밥 등), 수산배양육 3종(초밥, 덮밥, 캐비어)
 - 특히 고령푸드·메디푸드·팻푸드 등 기능성식품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 * 「수산식품 스마트 가공 기술개발」('21~'25, 총 121억원)



2 수출클러스터 등 수산식품 수출산업 기반 활성화

- (수출단지) 대규모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산업의 집적화 및 생산·유통 효율성 제고 등 규모의 경제 실현
 - **전남** 해조류 특화 수출단지를 조성, 고품질 김 생산 및 시장 확대 기반 구축 등 수출산업 경쟁력 확보('20~'26, 1,137억원)
 - **부산** R&D 특화 수출단지를 조성, 원양산 및 수입산 수산식품의 고차가공 식품에 대한 기술 기반 마련('22~'28, 813억원)
 - * 수입산 킹크랩·대구(러시아산) 및 원양산 참치 등 활용한 중국 시장 타겟 수산식품 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對중국 수입재수출 감소분 만회

- (가공종합단지) 전북 새우·메기 등, 경북 붉은대게 등 산지 특산물 맞춤형 스마트가공단지 조성을 통해 품목별 수출경쟁력 확보
 - * (전북 군산) '22~'26년, 433억원 / 착공 및 공정관리('25.上~)
 - * (경북 영덕) '23~'26년, 380억원 / 기본·실시설계('24.12~'25.말)
- IoT·AI 활용 식품위생(HACCP)·연구개발(R&D)·물류 효율화 시설 및 테스트베드 환경 등 공유 기반 인프라 시설 구축
- (가공설비 현대화) 김 등 주력 수출품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가공 기술 현대화 장비** 및 에너지절감시설(마른김)*** 지원
 - * (마른김 가공능력) 현재 연간 약 1억 8천만숙 가능하나, 안정적 김 수출물량 소화를 위해 2억만숙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능력 향상 필요
 - ** 가공설비 지원 21억원 / *** 마른김 품질위생 개선을 위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7억원


3 수산식품 수출기업 브랜드 가치 보호

◆ 수산식품 지식재산권 무단 선점 사례

- 우리나라 조미김·어묵 등 가공품 관련 모방상표가 중국·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고, 판매 중단 및 리콜 등 피해를 입는 사례 다수 발생



<(원)인니 상표, (오)한국 상표>

- (지재권) 기업 브랜드 무단 선점·도용 등 지재권 피해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간 지속적 협업체계** 구축
 - * (중앙부처) 해수부-특허청 / (산하기관) 수협-KMI-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업무협약('25.1분기) → 업계 교육·홍보 → 현지 단속 → 기업 피해 협업 대응
-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지재권 관련 분쟁 대응에 한계, 정부 주도 피해 예방 및 지원 필요
 - * 기업 규모별 수출업체('24) : 중소 94.9%, 중견 2.5%, 대기업 1.4%, 기타 1.2%
- (통합브랜드) 수출 국가통합브랜드 K-FISH  의 해외 현지 마케팅(팝업스토어 15개국) 등 통해 글로벌 인지도 확대
 - 잠재력 높은 수산식품 발굴하여 브랜드 승인* 및 해외 공동 마케팅, 통관문제 해소, 시장진출 지원으로 수출 촉진
 - * K-FISH 승인(개) : ('19) 172 → ('21) 244 → ('23) 336 → ('24) 350 → ('25°) 386
 - ** 순수출액 중 K-FISH 비중(%) : ('19) 6.9 → ('21) 11.8 → ('23) 17.5 → ('24) 19.9

V. 과제별 추진 일정

주요 정책과제	소관 부서, 협력기관	시행시기
1. 美 관세·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 우수수산물 정책자금 지원	해수부, αT, 수협은행	'25.3~
▶ 국내 물류 지원 및 현지 물류거점 확보	해수부, αT, 수무협	'24.下~'27
▶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운영	해수부, KMI	'25~'26
▶ 비관세장벽 플랫폼 개설	해수부, KMI	'25.5
▶ MMPA 대응체계 구축	해수부, 수품원	'25~'26
▶ 수산식품 수출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해수부, 수품원	'25~'26
▶ 리스크안전망 사업 확대	해수부, 수무협	'25~'26
▶ 천만불 강소기업 70개사 육성	해수부, αT	'25.3~
▶ 선도조직 사업 추진	해수부, αT	'25.3~
2.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 고수온에 강한 김 신품종 개발	해수부, 수산과학원	'24~'26
▶ 마른김 등급제 도입	해수부, 목포시	'24~'27
▶ 마른김 중금속 저감 장치 기술개발	해수부	'25~'30
▶ 국제 마른김 거래소 운영 기준 마련	해수부	'25~'30
▶ K-GIM 브랜드 확산	해수부, αT	'25.3~
▶ 국제인증 취득 지원	해수부, 한국수산회	'25.3~
▶ 유망상품 개발 사업 추진	해수부, 수협	'25.3~
▶ 현지 유통망 진출 지원	해수부, αT	'25.3~
▶ K씨푸드관 입점 및 콘텐츠 지원	해수부, αT, 수산무역협회	'25.3~
▶ 유망시장 맞춤형 현지 조사	해수부, 수산무역협회	'25.3~
▶ K-씨푸드 앵커숍	해수부, 수협	'25.3~
▶ 국제박람회 한국 수산식품관 운영 확대	해수부, αT, 수협	'25.3~
▶ 한류 K-박람회 및 K-콘텐츠 연계 홍보	해수부, αT	'25.3~
▶ 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인바운드 마케팅	해수부, 수산무역협회	'25.3~
▶ 무역지원센터 개편	해수부, 수협	'25.下
▶ 무역상담회 지원 내실화	해수부, 수협	'25.3~
3.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수출산업 기반 강화		
▶ 수산식품 가공공장 스마트화 전환	해수부, 중기부, 수산회	'25.3~
▶ 대체육·배양육 개발	해수부, KIMST	'24~'28
▶ 스마트 가공 기술 개발	해수부, KIMST	'21~'25
▶ 전남 해조류 특화 클러스터 조성	해수부, 전남도	'20~'26
▶ 부산 R&D 특화 클러스터 조성	해수부, 부산시	'22~'28
▶ 전북 스마트가공단지 구축	해수부, 전북도	'22~'26
▶ 경북 스마트가공단지 구축	해수부, 경북도	'23~'26
▶ 가공설비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해수부, 지자체	'25.3~
▶ 지식재산권 보호 협업체계 구축	해수부, 특허청, KMI, 수협	'25.3~
▶ 국가통합브랜드 해외 현지 마케팅	해수부, 수산회	'25.3~